

02-1 생명의 말씀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면 법사에 형통하며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02-2 교회소식

‘처치 리포트’ 『십자가의 도』 서평 실려

미국 내 50대 교회를 선정하는 기독교 언론사인 ‘처치 리포트’에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대표적 저서 『십자가의 도』에 대한 서평이 실린 소식 등 국내외 뉴스

03 BOOK

잠언 큐티 어떠세요?

2011년,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하루를 멋지게 승리할 수 있는 지혜를 얻길 원한다면 52개의 QT로 꾸며진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잠언 컬럼 모음 『지혜의 샘』을 추천한다.

04 간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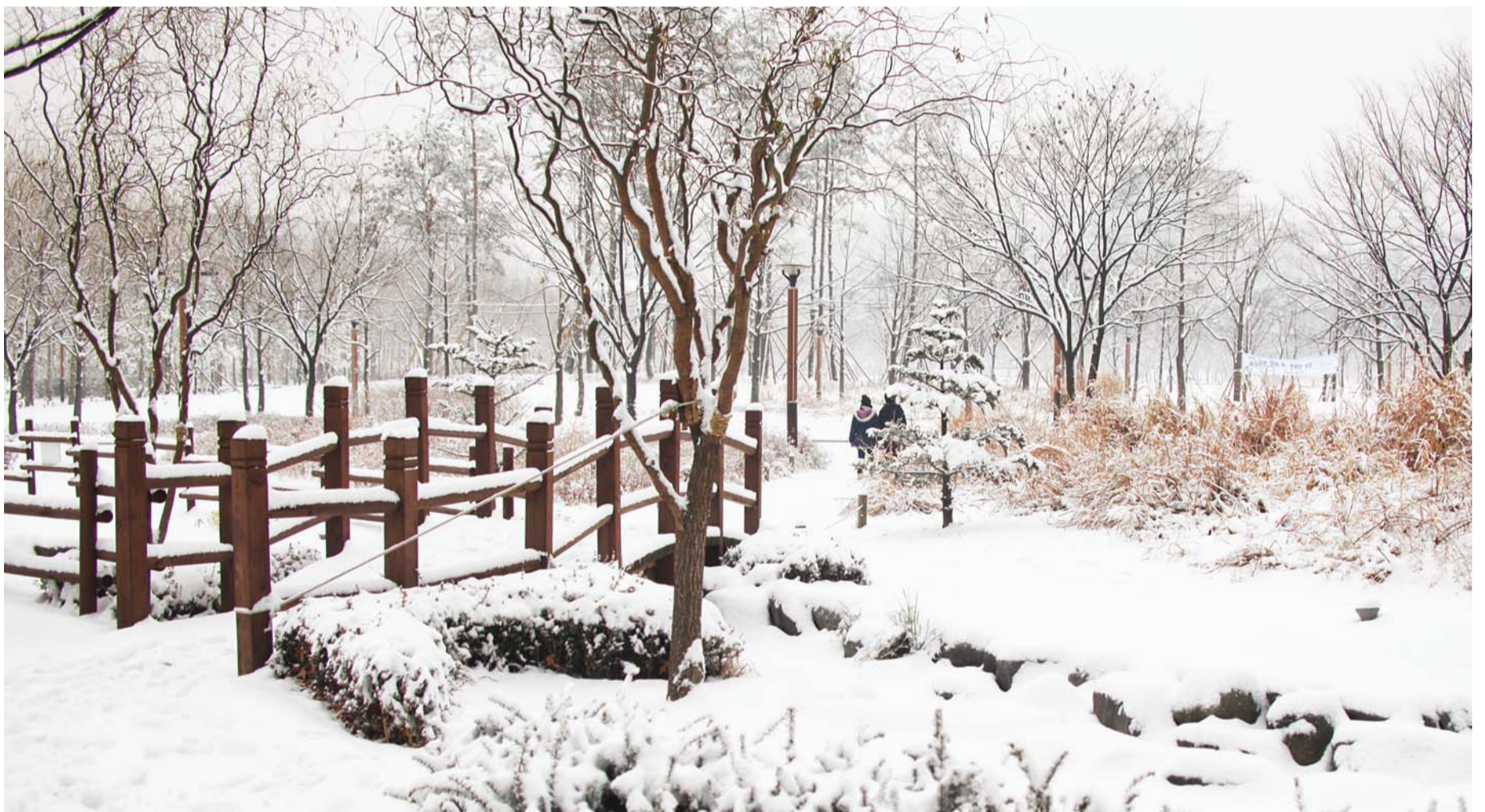
“교회와 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인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배려와 정직함으로 두 개의 사업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받은 은혜를 나누는 기쁨 속에 살고 있는 이규동 장로의 간증

만민뉴스

제463호 2011년 1월 2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새하얀 눈 맞으며 내 마음도 하얗게 변해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축복 가운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과 막힌 죄의 담을 헐고 눈같이 희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송구영신예배를 준비했다. 새해에는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선리와 영광을 드러내며 더욱 넘치는 감사와 축복의 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2010년 12월 28일, 서울 보라매 공원).

2010-2011 송구영신예배

이재록 목사, 성결의 오중복음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제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녀가 되기를 기원

2011년 새해가 밝았다. 작년 한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속에 신앙의 부활로 다시 태어난 성도들은 새로운 비전과 각오로 마음이 뜨겁다. 2011년은 어느 해보다도 더욱 놀라운 응답과 축복의 해가 될 것이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지난 12월 26일 사무연회 석상에서, 새해를 맞아 우리 교회가 이뤄야 할 4대 비전을 발표했다. 바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제단(사 60:1-3),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녀(히 10:22), 아버지의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는 성전(사 60:4), 폭발적인 목자의 권능(요 14:12)이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사무연회를 마치면 한 주간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송구영신예배를 준비한다. 2010-2011 송구영신예배는 전 세계 9천여 개의 지교회와 협력교회가 GCN 방송과 인터넷 방송으로 동참한 가운데 12월 31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진행된다.

1부 예배를 통하여 이 목사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제단’이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때에 참된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될 것을 선포한다. 1982년 교회 개척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을 놓고 힘차게 달려온 우리 교회는 올해부터 본격적인 교계 활동과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세계 선교로 더 크게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2부에는 교회 4대 비전과 성도들의 한 해 3가지 기도제목이 적힌 카드를 단으로 올려 이재록 목사의 축복기도를 받는다. 성도들은 이 7가지 기도제목을 이루기 위해 한 해 동안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3부에는 예능위원회 소속 닥스 오케스트라, 파워워십팀, 예술선교단, 연합찬양팀이 교회 네 가지 기도제목을 주제로 다

양한 장르의 공연을 펼치는 중간중간에 성도들이 교회 신년 기도제목을 위해 기도한다.

우리 교회는 새해를 맞아 성결의 오중복음으로 빛을 발하는 제단이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로 나와 아버지의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는 가나안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에 폭발적인 목자의 권능으로 무수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마지막 때에 하나님 선리와 영광을 확연히 드러낼 것이다.



지난 12월 26일 사무연회 시 교회 부흥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만민기도원 이복남 원장과 예술선교단 지도 서경애 집사에게 공로패를, 한주경 찬양선교사와 이규동 장로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